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6권 4호(2013年 11月)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26(4)105-116
http://www.wonjeon.org
http://dx.doi.org/10.14369/skmc.2013.26.4.105

大腸正格證과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과의 관계 考察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1]·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2]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3]
이진철[1]·박상균[2]·방정균[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e-Jang-Jung-Gyeok(大腸正格) and Leaky Gut Syndrome

Lee Jin-Cheoul[1]·Park Sang-Kyun[2]·Bang Jung-kyun[3]*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Meridia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3]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If the penetration ratio of the intestinal mucosa is increased, the toxic or unhealthy materials - which should not be absorbed into our bodies - will be come into our bodies. They cause a sort of anti-toxic response or confusion of the immune system, and ultimately bring various types of diseases. This syndrome is related "Poison in Excrement" or "Internal Damage(內傷發瘕)" and Leaky Gut Syndrome, so I wil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e-Jang-Jung-gyeok and Leaky Gut Syndrome.

Result : Korean doctors in ancient times called this syndrome "Poison in Excrement" or "Internal Damage(內傷發瘕)" and treated it with "Dae-Jang-Jung-Gyeok(大腸正格)". Leaky Gut Syndrome is a sort of clinical lesion, which allows foreign and harmful toxins in and results in a disorder of the immune system due to the leaking intestinal mucosa.

Conclusion : Based upon the analyses, Dae-Jang-Jung-Gyeok and Leaky Gut Syndrome are closely related. Therefore diseases caused by the Leaky Gut Syndrome might be expected to be cured by Dae-Jang-Jung-Gyeok. Particularly the use of treatments for self-immune diseases and allergic diseases such as atopyic dermatitis and articular rheumatism should be expected to reveal a new path of treatment for other disorders such as Leaky Gut Syndrome.

Key Words : Poison in Excrement, Internal Damage(內傷發瘕), Dae-Jang-Jung-Gyeok(大腸正格), Leaky Gut Syndrome

www.kci.go.kr

Ⅰ. 緖 論

大腸正格이란 대장의 正氣를 돕는다는 뜻을 가진 鍼 처방이며『사암침구정전』전체를 통하여 여러 번 등장하며 매우 다양한 병증에 사용되어지고 있다.「치료편」에 8번이 나오는데 주로 腹痛과 嘔吐, 大便不通, 腰痛, 風齒, 痔疾 등을 다루는 門에서 보인다. 그리고 각 門 별로 치험례를 기술한「경험편」에는 12번이 나온다. 또한 뒤에 별도의 치험례 즉「外例」가 다섯 개 실려 있는데 이것이 모두 大腸正格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대장은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변의 배출과 관계가 깊은 장부이다. 따라서 대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腹痛이나 便秘, 泄瀉 등 대변 배출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장기능을 치료한다고 하는 대장정격으로 浮腫이나 腰痛, 눈병, 피부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증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장의 기능 중에 장 내부의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있고, 이 방어벽이 약해지면 독소가 몸 안으로 흡수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서양의학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장누수증후군(LGS: Leaky Gut Syndrome)'이다. 장누수증후군은 장점막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체내에 유입되지 말아야 할 물질이 흡수되어 면역체계의 이상을 발생시켜서 류마치스 관절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장누수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인 것에 머물고 있어 실제적인 치료방법이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연결하면 이러한 질병들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한의학 문헌에 있는 대장정격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조문을 찾아서 기록, 번역한 후 장누수증후군에 관한 학술논문들을 요약, 정리하였고 그 후에 대장정격증을 하나씩 장누수증후군의 개념과 비교하여 연관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Ⅱ. 本 論

1. 大腸正格에 대하여

1) 사암침법의 구성원리(정격에 관하여)

사암침법은『靈樞』의『本輸』편에 나오는 五輸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鍼法이다. 즉 오수혈을 재료로 4개의 穴을 사용하여 하나의 치료처방을 구성하는데, 12경락에 각각 正格, 勝格, 寒格, 熱格의 4가지 종류의 치료처방이 있다.

그 중 正格은 正氣를 돕는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大腸正格은 대장의 正氣를 도와서 대장이 허약해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鍼 처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대장정격의 치료대상이 되는 증상들을 大腸虛症이라고 한다.

正格을 구성하는 원리는 五行의 相生, 相克을 바탕으로『難經·六十九難』에 있는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1]"라는 원칙과『難經·七十五難』에 있는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2]"의 원리를 自經과 他經에 모두 응용하여 구성한다. 正格의 구성은 자신을 生하여 주는 經의 母穴과 자신의 經의 母穴을 補하고, 나를 억제하는 經의 억제 穴과 자신의 經絡의 억제 穴을 瀉한다. 그러므로 大腸正格의 구성은 土生金하므로 土經인 胃經의 土穴인 足三里(Joksamni;ST 36)穴과 자신의 경락인 大腸經의 土穴인 曲池(Gokji;LI 11)穴을 補한다. 그리고 火克金하므로 火經인 小腸經중의 火穴인 陽谷(Yanggok;SI 5)穴과 자신의 경락인 大腸經의 火穴인 陽谿(Yanggye;LI 5)穴을 瀉한다.

2) 사암침법「치료편」의 대장정격의 적응증상

「치료편」에는 총 8례의 대장정격의 적응증상을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E-mail : jkbang@sangji.ac.kr Tel : 033-730-0666
접수일(2013년 10월14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오기용 역. 校正圖註八十一難經. 원주. 영서신문사 출판부. 1999. p.236.
2) 오기용 역. 校正圖註八十一難經. 원준. 영서신문사 출판부. 1999. p.248.

www.kci.go.kr

기술하고 있다. 腹痛, 腰痛, 寒疝, 風齒, 痔漏 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大腸噎: 大腸熱結 則不能便 嘔吐.[3]

② 呃逆: 因氣逆上衝之呃逆.[4]

③ 寒腹痛: 綿綿痛 無增減. 腸鳴泄瀉 得溫則緩.[5]

④ 大腸虛腰痛: 筋骨似折 必耳下大腸經 有結核也.[6]

⑤ 寒疝: 囊冷硬結如石 陰莖不擧 或空睾丸而痛.[7]

⑥ 風齒: 齒齦腫痛 有膿臭.[8]

⑦ 痔漏: 如大澤中, 但, 有小肉突出, 爲痔疾, 若久而不愈, 必至穿穴, 爲痔漏矣.[9]

⑧ 産後中風: 産後 左癱右瘓 或角弓反張.[10]

3) 사암침법 「경험편」의 대장정격의 사용례

「경험편」에는 총 12개의 사용례가 실려 있는데 泄瀉, 噎膈, 頭痛, 腹痛, 腰痛의 치험례가 있다. 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一小兒 年未十 常苦泄瀉 或以白濁 或以濡泄作面目之浮 或間半日 先濁後淸 或心下有伏梁 多見大腸之候 故 治大腸正格有效. 然則 胎熱之 在內者 擁遏津液 大腸不能傳導故耶 泄門 本無大腸 以治之者難及處故 引腹痛門 寒邪入腸 明之也. <泄瀉門>[11]

② 一男子 年二十 面色痿黃而微浮 肌膚胖大 常患食滯 以食滯例 治內庭瀉 不驗 更診耳下 大腸經有結核 方覺大腸噎 治之快已. <噎膈門>[12]

③ 一女子 常頭痛 或頸項痛 或左右脚痛 頭痛大作之時 或作驚駭 不能擧眼視物 聞之印 十歲前有頸項痛雖似肝候 有大腸之症 故 用大腸正格愈. 頭痛本無大腸之症 頸項痛者 必疑肝候故 體氣虛弱則 風必傷腑症引用解明矣. <頭痛門>[13]

④ 一男子 年四十 初作腹痛 或腰痛 後作風丹 左頰全紅 至目下及在髮際 診左耳下 有結核 故 用大腸正格 病快差矣. <腹痛門>

⑤ 一女子 有腹痛 但風丹 故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故 用大腸正格 快差矣. <腹痛門>

⑥ 一男子 終日□衣水役後 腹痛大作 水役盛寒 故用大腸正格 立效矣. <腹痛門>

⑦ 一女子 年二十 常小腹痛 大腸不足耶 腎虛耶未知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故 不病便 大腸正格 卽快差矣. <腹痛門>

⑧ 一男兒 年十 臍下腹痛累日 號泣轉動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知大腸虛 用大腸正格 快差矣. <腹痛門>[14]

⑨ 一男兒 年十 右脚蹇 踝骨下還而痛 左右耳珠下有結核 大者十餘個 小者不計數 多在大腸經 兩眼黑睛亂散紅白 視物如霧 用大腸正格 四五度快愈. <腰痛門>

⑩ 一婦人 常苦腰痛 不能食 四末或生癮疹 全身浮氣 頭面尤重 或作腹痛 此大腸虛 用大腸正格 諸症快差矣. <腰痛門>

⑪ 一男子 年五十 腰痛幷右脚無力燥澁 旣累年矣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故 用左大腸正格 數度快差. <腰痛門>

⑫ 余自少時 隱隱腰痛 或換節期時 手臂如水腫 或二三月解 或四節不解 或秋則尤劇 胸背脊重 上腹如飽 耳鳴大作 時作肅然就宿 時有或恐怖症 廣問藥律 或曰內腫 或曰心火 百口異說 無一人言 大腸之候 時人 誤稱虛勞 施治鍼藥 促命者有多 是大腸之虛. 余之三弟

3)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153.
4)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156.
5)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194.
6)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200.
7)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213.
8)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250.
9)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261.
10)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282.
11)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353.
12)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355.
13)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366.
14)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369.

www.kci.go.kr

及長子 亦皆此而誤去耳. 何故耶 母胎之不足 經痘之餘熱 或爲項核 或爲喉症 或喉口之乾而善嚥 或脇腋如痰痛 或爲疝氣 或爲噎膈 或爲風疾 或爲眼淚 諸症所謂 稟賦不足 最恨晩覺耳 非經閱 豈知如神此理哉. <腰痛門>[15]

위에서 나타나듯이 경험편에는 泄瀉 1회, 噎膈 1회, 頭痛 1회, 腹痛 5회, 腰痛 4회의 치험례가 기록되어 있으니, 주로 腹痛과 腰痛의 증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 腹痛의 경우 風丹의 증상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2회였고, 귀 밑의 手陽明大腸經 유주상에 멍울이 있는 것이 4회였다. 腰痛의 경우에는 귀 밑에 멍울이 생기는 것이 3회였는데, 나머지 한 경우도 부기가 있는 것이었다. 腰痛의 원인에 대해서는 稟賦不足 또는 천연두를 앓고 난 후 발생하는 熱毒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경험편에서는 대장정격을 대장허증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진단의 요점으로 귀 아래 멍울을 제시한 것이 총 12개의 치험례 가운데 6회나 되었다.

4) 「경험편」에는 각 門 별로 치험례가 붙어있는데, 뒤에 별도의 치험례 즉 外例가 다섯 개 실려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대장정격에 대한 내용이다.[16]

<外例1>

一男兒 年十五 全身浮腫 兩眼微開 僅而視物 初疑脹症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方覺體氣虛弱 風必傷附 治大腸正格 一度浮去 項上結核 數三度消盡矣.

<外例2>

一男子 年四十 有左耳下 如疽浮白 別無疼痛 必是體氣虛弱 風必傷腑 治大腸正格 數度快差.

<外例3>

一小兒 年三 常淸泄瀉不止 面黃少浮 蔽骨下有伏梁 右耳下大腸經 有結核 治左大腸正格 數度快差. 然胎水之在腸 熱不能發散 故 因氣虛傷腑耶 非有結核誤於伏梁.

<外例4>

一女兒 年十四五 全身浮腫 兩眼僅開 有頭瘡旣久矣 耳下大腸經 有結核 方覺胎毒 治大腸正格 數度餘於 浮氣皆除 胎毒快差.

<外例5>

一男兒 年十五六 右便齒疳蝕 濃汁自齒間出 又右頰浮 時作振寒 腫外刺痛 右頭面不能按 左頰不能轉側 診耳下大腸經 有結核 方覺胎毒 治大腸正格 數度有效 非項上結核 豈知胎毒耶.

外例에서는 痘瘡과 齒疳蝕 등의 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5례에서 모두 귀 밑의 멍울을 진단 요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5례에서 모두 몸의 붓는 증상이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다.

5) 대장허증과 원인과 기전

위에서 사암침법 「치료편」과 「경험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암도인은 대장허증의 원인으로 稟賦不足과 胎毒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전으로 體氣虛弱과 風必傷腑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장허증 즉, 대장정격의 치료 증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① 耳下 大腸經上 有結核 귀 아래 대장경상에 멍울이 있다.
② 浮腫 부종
③ 腹痛 배꼽주위의 복통
④ 泄瀉, 大便難 설사나 변비
⑤ 頭瘡 머리의 부스럼.
⑥ 胎熱, 癮疹, 風丹 아토피 피부염
⑦ 腰痛 요통
⑧ 脚痛 이유를 알 수 없는 다리의 통증
⑨ 眼疾 눈병, 눈 다래끼
⑩ 風齒 잇몸이 붓고 아프다.
⑪ 頭痛 두통
⑫ 體氣虛弱 무기력, 피로

이상의 정리된 증상 가운데, 첫 번째의 '耳下 大腸經上 有結核'은 병증이 아니고 大腸虛症으로 진단

15)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373.
16)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p.407~408.

www.kci.go.kr

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기술되었고, '頭痛'은 치험례에 언급되어 있으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大腸虛症은 위의 열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러한 증상들을 한의학적인 臟象論과 經絡學說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腹痛'은 대장의 위치와 관련이 깊다. 대장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靈樞』의 「腸胃」편에서 "回腸은 배꼽부위에서 왼쪽으로 감겨 있고 열여섯 번의 굴곡을 이루며, 둘레는 4寸이고 직경은 1⅓寸이며 길이는 2丈 1尺이다. 廣腸은 脊部에 부착되어 있고 回腸의 내용물을 받아들이며, 왼쪽으로 감겨져 脊柱의 상·하부에 쌓여 있다. 둘레는 8寸이고 직경은 2⅔寸이며 길이는 2尺 8寸이다."[17]라고 하였고, 『靈樞』의 「平人絶穀」편에서는 "回腸은 둘레가 4寸이고 지름이 1⅓寸, 길이가 2丈 1尺이며, 음식물은 1斗, 물은 7.5升까지 수용할 수 있다. 廣腸은 둘레가 8寸, 지름이 2⅔寸, 길이가 2尺 8寸이며, 음식물은 9升 3⅛合을 받아들일 수 있다"[18]고 하여 大腸의 위치, 형태, 크기, 중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大腸은 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大腸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腹痛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腹痛을 寒熱과 虛實로 구분해 보면 熱과 實은 특히 陽明腑實의 腹痛으로, 寒과 虛는 대체로 太陰病과 少陰病의 腹痛으로 볼 수 있다. 陽明腑實의 腹痛은 胃家實 즉 胃와 大腸의 實熱로 인해 燥屎가 있는 腹痛으로 볼 수 있으며, 『傷寒論』 조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일례로 "大下後, 六七日不大便, 煩不解, 腹滿痛者, 此有燥屎也."(241조)[19]를 들 수 있다. 『傷寒論』의 太陰病과 少陰病의 腹痛 가운데 寒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腹痛의 경우 大腸政格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273조)[20]과 "少陰病, 二三日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下利不止, 便膿血者, 桃花湯主之"(307조)[21]를 들 수 있다. 이 조문들에서 腹痛은 寒腹痛을 의미하며, 寒邪가 더욱 깊이 들어가 虛寒이 더 심해지므로 陽虛陰盛, 寒凝不解의 상태가 되어 腹痛이 나타나는[22] 기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접적인 病因은 脾陽虛와 腎陽虛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腹痛이 주된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 때문에 다른 치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脾陽虛와 腎陽虛로 인해 泄瀉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大腸의 虛寒을 초래 할 수 있고, 大腸의 虛寒으로 인해 腹痛이 유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大腸政格의 치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葉天士는 "손으로 누르거나 만지지 못할 정도면 實證이며, 누를 수 있고 문지를 수 있으면 虛證이다.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는 것은 虛證이고, 통증이 멎지 않고 쭉 아픈 것은 實證이다."[23]라고 하였으니 본 논문에서의 寒腹痛도 이러한 虛證의 양상이 있을 것이다.

'泄瀉, 大便難'은 大腸의 기능과 관계가 깊다. 『素問』의 「靈蘭秘典論」에서는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이라[24] 하였는데 傳道之官이란 음식물을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 보내 대변으로 배출시킨다는 뜻이고, 變化出이란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면서 그 모습이 변한다는 말이다. 즉 음식물이 大腸을 지나면서 소화되어 대변으로 변하고 大腸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대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소화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泄瀉나 大便難과 같이 대변배출에 이상이 나타

17)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2권. p.261.
廻腸當臍, 左環廻周葉積而下, 廻運環反十六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廣腸傳脊, 以受廻腸, 左環葉脊上下, 辟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18)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2권. p.272.
廻腸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受穀一斗, 水七升半. 廣腸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受穀九升三合八分合之一.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여강출판사. 2000. 2권. p.272.

19)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481.

20)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526.

21)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587.

22)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587 .

23)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226.

24)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권 p.231.

www.kci.go.kr

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大腸이 병들면 음식물의 소화흡수에 장애가 발생하여 水穀之氣를 원활히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元氣가 약해져 '體氣虛弱'이 나타나게 된다.

泄瀉는 『傷寒論』에서 下利로 볼 수 있고, 주로 熱과 寒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개 實熱이 내부에 그득한 경우[25]로 『傷寒論』 조문에서도 373조[26], 374조[27] 등을 들 수 있다. 대장허증의 泄瀉 즉 下利는 下焦가 虛寒한 경우[28]이며 『傷寒論』 조문에서는 306조[29], 314조[30], 315조[31]를 들 수 있다.

한편 大便難은 『傷寒論』에서 大便硬, 大便難으로 표현되며 주로 津液이 소모되어 腸胃가 마르는 경우[32]가 대부분이지만 陰結의 경우 陰寒의 기운이 뭉쳐서 대변이 말라 굳어진 것인데, 陽氣가 虛하므로 脾胃의 津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大腸의 傳導가 잘되지 않게 되며[33] 이러한 경우는 大腸虛寒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腰痛'은 「치료편」에서는 大腸虛症으로, 「경험편」에서는 大腸虛症과 稟賦不足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腰는 腎의 腑이므로 腎虛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즉 腎虛는 先天의 不足으로 「경험편」에서 제시된 稟賦不足에 해당될 수 있으나 大腸과 연결되어 지적하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腰痛은 복부의 무력증과도 관계가 깊다. 大腸은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大腸經은 아랫배까지 이어지므로 大腸經이 병들면 복부 근육의 약화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脊椎를 지지하는 근육의 균형이 무너져서 腰痛이 발생하게 된다.

'風齒'의 경우에는 經絡學說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靈樞』에는 經絡에 병이 들었을 때 발생하는 是動病과 所生病[34]에 대한 문장이 있는데 「經脈」편에서 "大腸手陽明之脈... 是動則病齒痛, 頸腫. 是主津所生病者, 目黃, 口乾, 鼽衄,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35]이라 하였다. 여기서 是動病으로 齒痛이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齒痛의 발생원인은 大腸經의 유주노선으로 설명하는데 역시 『靈樞』의 「經脈」편에 "大腸手陽明之脈... 其支者 從缺盆上頸 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고 하였다.[36] 즉 手陽明大腸經의 가지가 목을 타고 올라가 빰을 뚫고 아랫니로 들어간 다음 다시 되돌아 나와 입술을 감싸고돌아 人中에서 만나 왼쪽 가지는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지는 왼쪽으로 교차하여 위로 콧구멍을 끼고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大腸經에 병이 들면 齒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頸腫' 역시 是動病으로 '목 부위가 붓는다.'는 뜻인데 大腸虛症에서 말하는 '浮腫'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浮腫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가 제시되는데, 바로 '頸腫' 뒤에 이어서 나오는 "是主津所生病者"이다. 이 구절은 '大腸經은 津으로 생긴 병을 주관 한다.'로 해석되며 특히 '主津'이 바로 浮腫의 원인에 해당된다. 여기서 津은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몸 안을 순환하는 맑은 체액을 말한다. 이를 현대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직액이나 림프액 등과 유사하다. 이러한 몸 안의 체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여 정체되면 浮腫이 발생하게 된

25)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법인문화사. 2006. p515.
26)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700.
下利欲飮水者, 以有熱故也, 白頭翁湯主之.
27)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700.
下利讝語者, 有燥屎也, 宜小承氣湯.
28)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515.
29)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700.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桃花湯主之.
30)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700.
少陰病, 下利, 白通湯主之.
31) 문준전 외 11 공편.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700.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猪膽汁湯主之. 服湯脈暴出者死, 微續者生.
32)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88.
33)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400.

34)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확정된 이론이 없고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크게 ①經絡에 外邪의 침입을 받아 발생하는 병증을 '是動病'이라 하고 本臟에 질병이 발생하여 本經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所生病'이라 하는 설과 ②是動病은 氣病이고 所生病은 血病이라는 설 등이 있다.
35)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1권 p.396.
36)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1권 pp.395~396.

www.kci.go.kr

다.

또한 '目黃'은 所生病으로 津液의 대사문제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해당되며 '눈에 황달이 생긴다.'는 뜻으로 大腸虛症에서 말하는 '眼疾'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大腸經의 유주노선이 눈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大腸經에 침범한 邪氣가 유주노선을 따라 눈까지 이르러 발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胎熱, 癮疹, 風丹' 은 피부병으로 피부에 발적과 소양감을 나타낸다. 『素問』의 「五臟生成篇」에서 "肺之合皮也, 其榮毛也.[37]"라 하여 피부의 병은 肺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肺와 大腸은 表裏관계이므로 피부의 병을 大腸을 다스려 치료할 수 있다. 한편 大腸은 한의학에서 五行상 金에 속한다. 『素門』의 「五常政大論」에서는 金의 平氣를 "審平"이라고 하였고, 太過하면 "堅成"이라고 하였고, 不及하면 "從革"이라고 하였다.[38] 이 말은 金의 특성은 견고하고 단단한 것인데 지나치면 너무 굳어지고, 부족하면 물러져서 부드러워 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金氣는 단단한 것, 견고한 것을 의미하고 大腸이 虛해졌다는 것은 金氣의 단단하게 지키는 힘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大腸이 약해져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키는 힘이 약해지면 大腸안의 大便이 몸 안으로 흡수 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똥독' 혹은 '內傷發癍'이라고 불렀는데, '內傷' 즉 소화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大腸의 이상은 피부에 병을 유발할 수 있다.

大腸正格은 大腸의 기능이 허약해졌을 때와 手陽明大腸經에 병이 들었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사암침법 「치료편」과 「경험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암도인은 大腸虛症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稟賦不足과 胎毒을 언급하면서 그 기전으로 體氣虛弱 風必傷腑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으로 제시한 稟賦不足과 胎毒에 대하여 살펴보면, 稟賦는 달리 稟受라고도 부르는데 先天적인 것을 말한다.[39] 따라서 稟賦不足이란 先天적으로 弱하게 태어났다는 말로써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제대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출생하였거나 영아기에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虛弱함을 말한다. 그리고 胎毒은 갓난아이에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하는 先天적인 病因으로 태아시기에 엄마가 음식 및 생활 攝生이 잘못되어 생긴 熱毒이 태아에게 전해진 것이다.[40] 결국 稟賦不足과 胎毒은 비슷한 말로써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나 출생 직후 영양부족이나 기타의 이유로 약해지거나 어떤 기능이상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전으로 제시한 體氣虛弱 風必傷腑에서 體氣虛弱은 몸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말로써 위에서 말한 稟賦不足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風必傷腑는 風邪에 의해 腑가 傷했다는 말로 風邪는 6淫의 하나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중 하나이고[41], 腑는 본래 6腑(: 胃, 小腸, 大腸, 膀胱, 膽, 三焦)의 준말이나 여기서는 소화관 내의 창자를 의미한다. 體氣虛弱 風必傷腑는 '몸이 허약하여 소화관이 손상을 입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2. 장누수증후군(LGS: Leaky Gut Syndrome)에 대하여

1) 정의 및 발생기전

장누수증후군(LGS: Leaky Gut Syndrome)은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장점막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흡수되어야 할 필수 영양성분의 흡수가 저하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체내에 유입되지 말

37)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권 p.277.

38) 이경우 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4권 p.197.
黃帝問曰 太虛寥廓, 五運廻薄, 衰盛不同, 損益相從, 願聞平氣, 何如而名, 何如而紀也. 岐伯對曰 昭乎哉問也, 木曰敷和, 火曰升明, 土曰備化, 金曰審平, 水曰靜順. 帝曰 其不及奈何. 岐伯曰 木曰委和, 火曰伏明, 土曰卑監, 金曰從革, 水曰涸流. 帝曰 太過何謂. 岐伯曰 木曰發生, 火曰赫曦, 土曰敦阜, 金曰堅成, 水曰流衍.

39)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1709.

40)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1629.

4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1709.

www.kci.go.kr

아야 할 물질이 흡수되어 체내 면역체계의 이상을 가져옴으로써 발생하는 일련의 임상적 장애를 말한다.[42]

창자 안쪽에 있는 장 점막 세포에는 수많은 미세융모(microbilli)가 있고 각 세포는 치밀결합(tight junction)에 의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이 미세융모는 위장에서 소화한 영양물질을 능동수송을 통하여 흡수하고, 치밀결합은 소화가 안 된 물질이나 큰 분자량의 외부물질, 미생물, 유해물질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정상적인 장 점막 세포의 미세융모와 세포간 치밀결합이 손상될 수 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장 점막을 '새는 장(Leaky gut)'이라고 부른다.

2) 발생원인

장 점막세포가 손상을 받는 중요한 원인들에는 소장 내 비정상적인 세균의 과다증식(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SIBO),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장내 모세혈관의 순환장애에 의한 허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재(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를 오래 쓴 경우, 과도한 단백분해효소로 인한 직접적인 장관 벽 손상, 부패한 음식의 섭취나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등이 있다.[43]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장 내 비정상적인 세균의 과다증식(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SIBO)이다.[44]

정상적인 경우 성인의 창자 내에는 400~500여 종의 정상 세균이 10^{10-12} CFU/ml이상의 숫자로 살면서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미세융모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장관 벽 구조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장내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의 제거, 장내 면역기능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5]

그러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양의 단순당 섭취, 장기간의 위산분비 억제제의 복용, 항생제의 오용 등에 의하여 정상 세균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틈을 타고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면 소장 내 비정상적인 세균의 과다증식(SIBO)이 발생하게 된다.[46] 그런데 이 밖에도 임상적으로 관찰 하면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3) 동반되는 질병들

장누수증후군의 질병발생기전 중 첫 번째는 내독소혈증반응(endotoxemia reaction)이다. 그람음성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lipopolysacchride(LPS)가 세균이 사멸하는 과정에서 유리되거나 염증 전구물질 등에 의해서 발생 한 내독소가 손상된 장점막을 통해 혈액내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거대분자물질의 유입에 의한 면역반응이다. 손상된 장 점막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대분자물질이 유입되면 이것이 항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장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GALT(Gut-associated lymphoid tissue)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항원과 항체가 복합체를 이루어 이것이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 쌓이면 면역질환을 일으키게 된다.[47]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 만성간염

간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혈액 내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것이다. 증가된 장투과성으로 혈중으로 유입된 내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간은 과도한 일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간이 손상되면서 각종 간질환을 유발하게 된다.[48]

---

42)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7.
43)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8.
44)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8.
45) 최준영. Leaky Gut Syndrome의 관점에서 본 주요 질환의 장 투과성 변화. 포천중문의과대 대체의학대학원, 2004. p.12.
46)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8.
47)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p.528-529.
48) 최준영. Leaky Gut Syndrome의 관점에서 본 주요 질환

www.kci.go.kr

② 설사, 과민성 대장증상, 염증성 장질환

급성설사 및 만성설사 모두에서 장투과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만성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의 33~67%가 SIBO라는 연구도 있다. 또한 설사를 주로 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에서 장투과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49]

③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이 장투과성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장투과도 증가가 관계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장투과도의 증가와 아토피 피부염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50]

④ 류마치스 관절염,

류마치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LGS와 관련되어 있다. 활성이 높은 류마치스환자에서 장투과도가 증가되어 있고, SIBO가 있었다는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장 점막의 손상이 류마치스 관절염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1]

⑤ 음식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의 원인에 장투과도의 증가가 관련되는데, 특히 우유가 장투과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52]

이 외에도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Lupus), 천식, 강직성 척수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 병 등이 LGS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53]

Ⅲ. 考 察

본론에서 정리한 대장허증을 장누수증후군과 연결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腹痛과 泄瀉 및 大便難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대장의 질환에 속하므로, 그 연관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② 頭瘡 머리의 부스럼.

머리의 피부에 발적과 소양감, 비듬과 비슷한 인설이 생긴다. 현대적 용어로는 지루성 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두창(頭瘡)과 태열(胎熱)은 보통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본인이 환자를 보면서 관찰했을 때에도 대장허증의 환자들에게 전형적인 아토피증상 외에도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원인은 약화된 장 투과성으로 인하여 유입된 내독소에 의해서 피부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胎熱, 癮疹, 風丹 아토피 피부염

태열(胎熱)이라고 해서 유아기에 이 병이 시작됨을 말하였고, 은진(癮疹)은 피부의 발적과 소양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하다. 얼굴의 풍단(風丹)은 아토피 피부염일 수도 있고 전신성 홍반성 낭창(Lupus)에서 나타나는 뺨의 홍반과도 유사하다.[54]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양감(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천식, 비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55] 아토피 피부염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Antigen)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의 차단이 치료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외부'만을

의 장 투과성 변화. 포천중문의과대 대체의학대학원, 2004. p.15.

49)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9.

50)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9.

51)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9.

52)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332호. 2009. p.529.

53) 전우규. 장건강 및 면역질환의 보완통합의학적 접근. Hanyang medical reviews. 30(2). 2010. p.110.

54) 뺨의 발진은 뺨 위로 편평하거나 약간 솟아오른 고정적인 홍반을 말한다. 주로 코 상부를 포함하여 대칭적인 나비 모양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서 수일간 지속된다. 대개 경계가 불분명하며 가렵지 않고 코와 입술 사이의 주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55)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제공

www.kci.go.kr

생각했기 때문에 항원의 차단을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 나머지 절반의 항원의 유입통로는 '내부' 즉 우리의 창자에 있었던 것이다. 장점막이 약화되어 세균과 부산물, 거대 단백질이 혈관내로 유입되면 이러한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알레르기를 일으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한의학 문헌에서 대장정격을 사용하여 피부의 증상을 치료한 것은 이러한 장의 이상을 치료함으로써 항원의 유입을 막아서 피부염의 발생을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신성 홍반성 낭창(Lupus)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Lupus)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는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으로 인체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면역계가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여 특징적인 홍반과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 때 면역체계가 교란되는 이유가 장에서 유입된 내독소와 세균일 가능성이 있다.

④ 腰痛은 장누수증후군과의 특별한 관계를 찾기 어렵지만 굳이 연추해보면 복부의 무력증과 관계가 깊다. 다만 척추도 여러 관절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래의 脚痛과 연관되어 발생한 관절염이 척추관절에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⑤ 眼疾 눈병, 눈 다래끼

눈 다래끼(hordeolum)는 급성 화농성 상태의 맥립종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 상태의 산립종으로 나눌 수 있다.[56] 다래끼는 외부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장허증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는 유난히 반복적으로 발병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역시 약화된 장 투과성으로 인하여 유입된 내독소에 의해서 눈 주위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 눈병이 생기고 잘 낫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⑥ 風齒

치주 질환(periodontal disease)은 치은염(gingivitis)과 치주염(periodontitis)으로 나뉜다.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치주질환으로 잇몸 즉,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풍치의 발병원인은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 하지 못해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다.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된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치아로부터 떨어지고, 이 사이에 염증이 생긴다. 그런데, 치주질환의 발생에는 면역기능의 약화도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단백질, 비타민 등의 영양부족, 임신한 경우나 당뇨병 등과 같은 호르몬 장애, 흡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57] 장누수증후군에 의한 면역기능의 교란과 약화가 치주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⑦ 頭痛

머리가 아프다는 뜻인데, 약화된 장 투과성으로 인하여 유입된 내독소에 의해서 두피와 눈 등의 여러 곳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 물질의 확산으로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⑧ 體氣虛弱 무기력, 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융모막의 기능저하로 인한 영양흡수 저하이다. 장 점막 에는 수많은 미세융모(microbilli)가 있고 여기에서 영양물질들은 확산과 능동수송에 의해서 혈관과 림프관 안으로 흡수되는데, 미세융모가 손상되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3대 주요영양소의 흡수를 비롯하여 비타민, 미네랄 등 미세영양소의 흡수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흡수의 저하로 인하여 무기력과 피로, 성장 장애 등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한 피로이다. 간은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며, 담즙을 만들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성물질을 해독하고, 쿠퍼세포(Kupffer's cell)를 통한 면역 작용 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장 점막으로 유입된 내독소와 거대분

56) 눈다래끼 hordeolum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57) 치주 질환 periodontal disease.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제공

www.kci.go.kr

자 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피로물질이 몸 안에 오래 동안 머물면서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을 유발한다.

⑨ 耳下 大腸經上 有結核과 浮腫

귀 아래 대장경상의 멍울과 부종은 병증은 아니지만 대장허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귀아래 목부위의 멍울은 장점막의 투과성 증대로 인하여 유입된 세균이나 부산물에 대한 면역반응의 결과로 림프절이 종대된 것이고, 부종은 림프절의 종대로 림프순환이 방해받으면서 생긴 림프부종으로 볼 수 있다.

장 점막의 손상으로 독소가 몸 안으로 흡수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현대의 서양의학에서는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이라 부르고, 옛날의 한의사들은 '똥독' 혹은 '내상발반(內傷發癍)'이라고 불렀고 대장정격이라는 침처방을 통해서 치료했다. 이처럼 동일한 질병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다만 개념적 접근 방식이나 치료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공통적으로 인간의 몸이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몸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사유체계에 의해서 사물과 자연을 이해하므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같은 질병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법을 갖게 된다. 또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으므로 다른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복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결책이 하나뿐이라면 그 하나의 해결책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나 해결책이 두 개라면 하나의 방법이 막혔을 때 또 다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면서 다른 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Ⅳ.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장허증과 장누수증후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과연 대장정격이 이러한 질병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치료효과를 갖는지는 실험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장정격의 침 시술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몸의 네 부위에 침을 놓아 수기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므로 인체에 큰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다. 따라서 적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술하여 통계적인 치료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장정격 증후군과 장누수증후군은 상호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장누수증후군 치료에 대장정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參考文獻

<論文>

1. 최준영. 새는 장증후군(Leaky Gut Syndrome)의 대체의학적 접근. 診斷과 治療. 29(5) 통권 332호. 2009. p.527 ,528, 529.
2. 최준영. Leaky Gut Syndrome의 관점에서 본 주요 질환의 장 투과성 변화. 포천중문의과대 대체의학대학원, 2004. p.12, 15.
3. 전우규. 장건강 및 면역질환의 보완통합의학적 접근. Hanyang medical reviews. 30(2). 2010. p.110.

<單行本>

1. 오기용 역. 校正圖註八十一難經. 원주. 영서신

www.kci.go.kr

문사 출판부. 1999. p.236, 248.
2. 황정학저. 정호영역. 舍岩針灸正傳. 대구. 선구자출판사. 1986. p.153, 156, 194, 200, 213, 250, 261, 282, 353, 355, 366, 368, 369, 373, 407, 408.
3. 이경우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261, 272, 395, 396.
4. 이경우번역.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197, 231, 277.
5. 문준전 외 11공저, 상한론정해(개정판).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 p.481, 587, 700.
6. 진주표. 상한론용어사전.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88, 226, 400, 515.
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판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2006. p.645.
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1629, 1709.
9. Kurt J. Isselbacher. 해리슨 번역 편찬위원회. HARRISON'S 내과학. 한글 1판.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7. pp.1777-1783.

<기타>
1.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제공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diseaseSymptomTypeCode=AA&diseaseSymptomCode=AA000394&cpId=CP00038907
2. 눈다래끼 hordeolum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제공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diseaseSymptomTypeCode=AA&diseaseSymptomCode=AA000377&cpId=CP00038907
3. 치주 질환 periodontal disease. 네이버 건강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제공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selectedTab=detail&diseaseSymptomTypeCode=AA&diseaseSymptomCode=AA000403&cpId=CP00038907

www.kci.go.kr